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초등학생 문학 활용 나눔 교육 방안 연구*

A Study on Literature Based Philanthropic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Strengthen Their Democratic Citizenship

임 성 관(Seong-Gwan Lim)**

< 목 차 >

- | | |
|-----------------|---------------------------|
| I. 서론 | 4. 외국의 나눔 교육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 선행연구 |
| 2. 연구방법 | III. 문학 활용 나눔 교육 방안 |
| II. 이론적 배경 | 1.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
| 1. 시민의식 | 2.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 적용 방안 |
| 2. 나눔 교육 | IV. 결론 |
| 3. 외국의 시민의식 교육 | |

초 록

본 연구는 진정한 복지사회가 되려면 국가의 법적·제도적 보장 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나눔'이 있어야 하고, 나눔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의 '나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나눔 교육의 필요성과 나눔 교육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나눔의 현 주소를 알아보기 위해 다른 나라의 나눔 문화와 나눔 교육을 살펴보았다. 셋째,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의 어린이들에게 실시할 수 있는 나눔 교육의 방안을 문학 활용 프로그램으로 모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형식적으로는 구조화된 경험적 집단 프로그램이고, 내용 면에서는 나눔에 대한 개념, 나눔의 대상, 나눔의 방법, 나눔과 관계된 기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 나눔 교육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가정 및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키워드: 민주시민의식, 문학 활용, 나눔, 나눔 교육, 문학 활용 나눔 교육

ABSTRACT

This study started from an understanding that a true welfare society requires voluntary 'sharing' of citizens in addition to the state's legal and institutional security and that to make the culture of sharing find a firm ground in our society, 'Philanthropic Education' is needed from the childhood. This study examined three issues; first suggested the need of philanthropic education and learning methods. secondly, to find out the present situations of sharing in Korea, the study looked into sharing cultures and philanthropic education in other countries. thirdly, the study explored ways of philanthropic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 Korea in literature based program methods. The structure of the program was designed as structured experimental group program. And the content of this program is composed of concepts, objects, process, institutions regarding philanthropy, and finally practical behavior of it. This study implies that discussions in taking root and revitalizing the philanthropic education to encourage prosocial behaviors of children by more efforts of family, community and school.

Keywords: Democratic citizenship, Literature based, Philanthropy, Philanthropic education, Literature based philanthropic education

* 이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원시 C초등학교 도
서실에서 실행된 프로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쓴 것임

** 휴독서치료연구소 소장,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빙교수 (harin75@hanmail.net)

•논문접수: 2015년 2월 20일 •최초심사: 2015년 2월 25일 •게재확정: 2015년 3월 18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1), 241-269,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03.24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물질만능주의는 개인과 소집단 중심의 이기주의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 및 1인 가정의 증가, 한 부모 가정의 증가와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 참여는 모든 관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가족 내 상호작용 기회를 감소시켜 개인주의를 더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갖게 되며,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민의식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더라도 경제·교육·문화·스포츠 등 여러 분야들은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있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시민의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개인 중심의 성취 지향성이 우리 사회 전반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공동체 의식은 미흡하다. 따라서 시민의식의 선진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식의 선진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나눔을 위한 봉사정신 및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질서 의식,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시민의식이 내면화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시민의식이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학교, 사회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 마침 2012년 고시된 누리 교육과정의 사회관계 영역에서도 질서, 배려, 협력 등, 공동체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주변 세계에 관심을 갖고 적응하는 능력과 바른 인성 기르기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 영역에서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에 관심 갖기의 내용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나눔과 배려, 공감 능력이 남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 필요한 시대적 가치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공존지수(NQ : Network Quotient)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회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자신이 속한 환경 안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도록 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초등학생의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문학 활용 나눔 프로그램 방안을 개발 및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초등학생을 위한 시민의식 프로그램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초등학생 대상 문학 활용 나눔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초등학생 문학 활용 나눔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 프로그램은 다양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을 위한 방안을 나누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시민의식과 나눔, 나눔 교육의 의미를 살펴보고, 더불어 다른 나라의 나눔 교육의 실례를 찾아보았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 나눔 교육의 현 주소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면서, 가정-학교-사회로 이어지는 나눔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의 어린이들에게 실시할 수 있는 나눔 교육의 방안을 문학 활용 프로그램으로 모색하였다. 프로그램의 모색은 2014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도시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원시 C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실행된 프로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문학 활용 나눔 교육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시민의식 및 나눔 교육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시민의식과 나눔 교육의 개념을 고찰하고, 나아가 외국에서의 시민의식교육과 나눔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시민의식

시민의식 또는 시민성(citizenship)은 사회라 칭할 수 있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자질 혹은 마음 자세를 말하며, 라틴어 civitas를 어원으로 한다.

시민성 이론은 학문적 분야와 학자의 접근 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한 개념을 형성해 왔다. 특히 그동안 시민교육 차원에서 시민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시민성의 의미를 간략하게 하나의 의미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나, 대체로 시민성은 특정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법적인 지위를 의미하는 ‘국적(nationality)’과 유사한 정치적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철학적 맥락에서 정치 공동체 내의 구성원의 실질적인 규범적 이상(substantive normative ideal)을 지칭하기도 한다(우맹식 2005, 12).

흔히 시민 내지 시민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한 나라 구성원의 법률적 지위를 규정하는 문제이다. 즉 한 나라의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 내지 시민권을 갖게 된다. 이러한 시민의 지위와 권리의 확대가 시민성의 확대이며, 이것을 민주화의 과정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동시에 시민성은 실질적이면서도 규범적인 바람직한 구성원을 강조한다. 즉 ‘시민성(citizenship)’이란 시민이 지녀야 할 자질과 관련하여 그의 가치관·태도·신념·규범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동시에 한 공동체의 개별 구성원들의 권한(authority)과 의무(obligation)를 한정하는 신분(status)과 역할(role)로 정의할 수 있다(박재창, Seliger 2007, 73).

오늘날 시민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율적인 개인(autonomous individual)’을 뜻하기도 하며, 공동체 내에서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뜻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시민성을 이해하는 입장에도 크게 시민권을 갖는 구성원으로서의 ‘자율적인 개인’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liberalistic) 전통과 시민으로서의 덕목을 지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적(communitarianistic) 전통이 있다(우맹식 2005, 2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시민의식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이 지녀야 할 자질에 필요한 가치관·태도·신념·규범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에게는 권한이 주어짐과 동시에 의무 또한 요구되는 덕목이라 정의할 수 있다.

2. 나눔 교육

Payton(1989)에 의하면 나눔은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단순히 돕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에 주력하는 것까지 포함하는데, 개인적 차원보다 인류라는 집합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인류의 발전 혹은 사회 서비스를 위한 대규모의 기관 혹은 조직화된 기구에 돈과 시간, 재능을 기부하는 행위로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나눔의 포괄적 의미로는 인간을 존중하고 각자 평등이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인종·종교·습관·국적을 초월한 인간애를 말한다.

나눔은 단순히 주는 행위(giving), 동정적이고 감정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자선행위(charity), 깊은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는 계획적인 박애활동(philanthropy)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philanthropy에 기반을 둔 나눔은 ① 타인을 위한 선의, 특히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② 인류애, ③ 나누고 돌봄, ④ 공익을 위해 자신의 시간, 재능, 재산을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대가없이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나눔은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단순히 사람을 돕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에 주력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는 개인적 차원보다 인류라는 집합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인류의 발전 혹은 사회 서비스를 위한 대규모의 기관 혹은 조직화된 기구에 돈을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나눔은 공익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 자발적인 서비스, 자발적인 기부를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된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이경은 2007, 6).

나눔 교육(philanthropic education)에 대한 정의는 나눔의 의미를 바탕으로 아동에게 빈곤, 장애 등 사회적 약자와 나를 '수평적 관계'로 인식하고, 나눔이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의 방법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즐거운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열린' 교육을 뜻한다(아름다운재단 2005, 3).

Bjorhovde(2002)는 5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시민의 리더로서의 시각을 고무시키고, 그들의 삶과 그들과 관련된 타인의 삶 속에서 시민으로서 참여해야 하는 의무감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나눔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나눔 교육을 통한 의식의 개선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들의 나눔 행동을 이끌어 내고 지역사회에 참여시키는 것 또한 나눔 교육의 목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나눔 행동은 사회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친사회적 행동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육되고 체득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나눔 교육이란 인종·종교·습관·국적을 초월한 인간애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행하는 교육 전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외국의 시민의식 교육

시민의식 교육은 유럽에서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깊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프랑스

프랑스 사회는 기본적으로 평등지향적인 기조가 강하다. 교육은 국가의 공공서비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학교까지 국가의 부담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그 공교육에 의해 국가의 인권보장상황에 대해 비판적 감시가 가능한 시민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송용구 2010, 83).

프랑스에서는 1985년부터 시작된 시민교육 재활성화의 움직임에 의해, 초등학교·중학교에서 시민교육이 전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모든 교사가 '시민교육'과의 목표를 염두에 두

어야 할 중요한 교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어서 1997년 교육과정 개정에 의해서는 1999년부터는 고교에서도 ‘시민·법률·사회’과가 실시되게 되었다. 이후 2002년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기초학습기)에는 ‘시민교육’과를 대신하여 ‘공동생활’과가 설치되어 주당 30분씩 토론을 행하도록 하였고,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는 ‘시민교육’과가 독립된 하나의 교과가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여러 과목에 분포하는 횡단영역(domaines transversaux)으로 바뀌어 모든 교과가 시민교육을 의식하여 내용에 있어서 최소 주 1시간의 시민교육 내용을 포함시키고 30분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토론을 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민교육’ 교과의 변화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프랑스의 ‘시민교육’이 단지 프랑스공화국의 시민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나아가서는 전 지구적 국제사회의 시민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藤井佐知子 2007, 127-128; 134-135).

1998년 7월 프랑스 교육부의 지침(circulaire)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시민성 교육」에서는 시민성 교육을 구성하는 세 가지 축을 <표 1>에 나타난 프랑스 시민성 교육의 구조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송용구 2010, 91).

<표 1> 프랑스 시민성(citoyenneté) 교육의 구조

시민성 교육의 세 분야	
1. 시민교육 교과	시민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
수업과목	초등학교(에콜 : École) 「시민도덕교육」과목 중학교(콜레주 : Collège) 「시민교육」과목 고등학교(리세 : Lycée) 「시민·법률·사회」과목
	「세계의 발견」 (기초학습과정) 「역사」「지리」 (심화학습과정) 「역사」「지리」 「경제사회과학」「철학」
방법	토론(시민교육교과에 대해 초등학교는 2008년 교육과정 이후 시간배정이 애매해졌고, 중학교·고등학교는 일주일에 30분 정도의 토론 시간이 배정된다)
내용	인권교육, 제도의 이해, 세계속의 프랑스
2. 그 외의 교과 (횡단영역 : domaines transversaux)	
테마	인권과 시민성 개인·집단의 책임, 비판적 정신의 연습과 토론의 실천
방법	토론
3. 시민적 아니셔티브	
테마	폭력, 비시민적 행동

나. 독일

독일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은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 Politische Unterricht)이라는 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독일 헌법은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인성교육, 직업교육과 함께 정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특히 정치교육은 청소년을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데 독일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은 우선 ‘역사 반성’으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나치스의 역사는 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치욕의 역사이며, 이 때문에 독일이 민주시민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결정적인 장애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부에서는 2013년에 학교시민교육의 슬로건을 ‘미래를 위한 기억(Erinnern für die Zukunft)’으로 정하여 실시한 바 있다.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교육의 시작이라는 논리다. 또한 독일에서는 1, 2차 세계대전, 베를린 장벽의 붕괴 등 세계사적 사실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민주교육의 지름길이라고 여긴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의 정치수업에서 아이들은 정치적 지식과 정치적 세계상을 획득한다. 이로써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아이들의 ‘정치적-사회적 성숙’을 목표하는데, 이는 앞으로 이들이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특수교육의 영역이나 특별활동이 아니다. 오히려 일반교육(Allgemeinbildung)의 범주에 든다. 다시 말하면 독일에서 ‘정치적 역량’은 ‘사회적 역량(Sozialkompetenz)’에 해당된다. 즉 이는 글자를 알고 셈을 할 줄 앎으로써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역량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이상오 2014, 37-38).

독일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교육의 중심 테마는 학생들에게 의사소통(Kommunikation), 협력(Kooperation) 그리고 참여(Partizipation)의 능력과 가능성을 배양시켜 주는 것이다(Pöggeler 1981, 178). 왜냐하면 이들은 훗날 시민사회의 ‘공동의 삶(Zu-sammenleben)’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공동체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는 일을 하게 된다. 특히 학교 정치교육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 나가면서 민주시민사회에 대한 자신만의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민주시민사회의 가치를 자기책임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Mickel 1995, 562).

다. 유럽 연합

유럽 통합은 크게 정치적 통합, 경제적 통합 그리고 사회적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51년 서유럽 6개국이 참여하여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로 출범한 유럽 연합은 전통적 국가 간의 협력을 벗어난 유례없는 초국가적 방식의 지역 통합을 발전시켜왔다. 유럽 연합은 단일 통화를 통하여 지역 통합의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 아니라 유럽 연합의 대통령이라고 지칭되

는 상임의장을 선출하여 정치적 통합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 연합의 정치·경제적 통합은 사회적 통합, 즉 유럽 연합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없이는 그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신두철 2010, 88).

이런 이유로 유럽의 시민교육과 정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유럽시민교육네트워크(Networking European Citizenship Education, NECE)는 ‘유럽 시민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더불어 1995년 3월 유럽 의회와 각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채택된 SOCRATES 프로그램은 유럽 연합 회원국과 준회원국 등 총 31개 국가에서 참여했으며, 유럽 내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교류를 다양화 하고 만남 기회를 높여줌으로써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유럽 연합 시민으로서의 동류의식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4. 외국의 나눔 교육

나눔 교육은 긍정적 자아상 확립,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의 형성 및 향상을 가져오고 자발성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며,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를 갖게 한다. 나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감을 얻는 것과 함께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된다. 성장 과정 속에서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된 경우일지라도 기존의 과목 영역이 아닌 새로운 영역에서의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감을 느낄 때 극대화된다. 초등학교 시기는 성취감과 열등감, 자존감이 발달하는 때이므로 이 시기에 나눔에 대해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자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나눔의 실천을 통해 누군가에게 선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을 배워나간다(최서연 2012, 17). 따라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나눔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영국

영국은 뿌리 깊은 나눔 문화의 전통으로 인하여 나눔이 생활화 되어 있고 자선단체가 활성화 되어 있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나눔 교육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학교에서 구현되는 나눔 교육 프로그램은 시민성 교육과 연결되어 있고, 나눔의 실천을 시민의 자질로 여긴다. 프로그램의 종류로는 ‘Go-Givers’와 ‘Giving Nation’, ‘Oxfam Education’ 등이 있다.

이 가운데 ‘Go-Givers’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 교육 프로젝트로, 배려와 주변에의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과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자신감과 기술을

기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하여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다양한 게임 활동을 함께 제공하고 있고, 2007년 웹사이트 개설 이후 117개의 수업안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만 57,266번 다운로드 되었다.

두 번째로 ‘Giving Nation’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이다. 2001년 영국이 정부차원에서 나눔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청소년 나눔 교육 사업이며, 3,700개가량의 학급에서 16만 명 이상의 중고등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만큼 대대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주관하는 ‘Giving-Week’ 행사를 기획하여 2003년에 400여개의 학교가 이 행사에 참가하였고 2004년에는 800여개의 학교들이 참가하였다(신경희 2010, 29).

마지막으로 ‘Oxfam Education’은 세계 모든 아동들이 무상 초등교육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Oxfam’의 교육정책이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빈곤 완화 과정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빈곤층을 위한 우선 정책이다. ‘Oxfam’의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적극적인 시민이 되도록 권장하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의 주요 문제들을 이해하도록 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이 되도록 행동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xfam’의 교육 프로그램 웹사이트인 ‘Oxfam Education’은 100여개의 온라인 자료와 수업 지도안 제공, 교사 연수 실시, 전문 인력 개발, 다른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교사들을 지원한다.

나. 미국

미국의 나눔 교육으로는 ‘Child Development Project’, ‘Skills for Growing’, ‘The Giraffe Project’, ‘Learning to Give’ 등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유치원부터 초등학생에 적용 가능한 것이며, ‘The Giraffe Project’, ‘Learning to Give’는 고등학생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이 두 프로그램은 교사 안내서와 네 개의 학년군으로 구분된 수업안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Learning to Give’는 1997년 미국 미시간주재단위원회, 미시간주립대학교와 다른 여러 단체들이 협력하여 시작한 종합 프로그램이다. 5년의 시간을 들여 내용 체계 구성, 수업 자료 제작, 교사 연수, 출판, 평가 등을 진행하였다. ‘Learning to Give’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 약 1,900여개의 교실에서 실시되고 있고, 전 교사의 1/3 이상이 이 단체의 수업안을 활용하고 있어 공신력 있는 나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음의 <표 2>는 앞서 살펴본 영국과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나눔 교육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종합한 것이다.

〈표 2〉 영국과 미국의 나눔 교육 특징

영국	영국에서는 나눔의 실천을 시민의 기본 자질로 여기고 있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자선단체가 활성화 되어 있는 등 나눔 문화의 전통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소수이지만 학교에서 구현되는 나눔 교육 프로그램은 시민성 교육과 연결되어 있다.
미국	미국의 나눔 교육은 각 지역에 존재하는 사립학교 혹은 커뮤니티 파운데이션(Community Foundation)을 중심으로 소수의 학생들에게 리더십 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Learning to Give' 와 같은 지원 체계를 통해 연수를 실시하거나 교안을 작성하여 배포해 준다. 이를 통해 미국의 나눔 교육은 학교와 단체가 효과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나눔 교육은 그들의 사회 환경과 독립되어 실시될 수 없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 사회로 이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계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에서 문학을 활용해 나눔 교육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영국과 미국의 기본 철학을 수용하고, 하나의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5.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시민의식 함양과 나눔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시민의식 함양

고문길(2002)은 어린이회를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의식과 질서를 지키며, 그 집단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태도와 집단 사고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집단 활동으로서,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함양해 가는 활동이라 하였다. 따라서 어린이회를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방안 연구를 통해 현재 초등학교에서 특별활동 과정의 하나인 자치활동으로 행해지고 있는 어린이회 활동에 대해 현행 교육과정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내용, 방법,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영방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의 연구 성과와 현장의 여건을 토대로 어린이회에 대한 성격과 의의를 민주시민의식 함양으로 정립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수호(2014)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 규범과 행동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적인 시민의식과 나이에 맞는 전문적인 시민성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이므로, 독서교육은 사회의 이데올로기나 영향에서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독자를 양성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전제 하에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독서지도 방안 연

구를 실시했다. 그는 이 연구에서 토의 및 토론이 민주적 의사결정의 일상적 과정으로써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이 자주 경험해야 할 활동인 동시에 고급사고력을 신장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활동 중의 하나라고 하면서, 참여식 교수법이라고 불리는 메타플랜을 활용한 토의·토론 학습 모형을 구안 개발하였다.

윤중원(2014)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학급공동체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연구를 통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실 단위로 운영되는 공동체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 아동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였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 1개 반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총 26차시에 걸쳐 학급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를 구축하였으며, 의사결정하기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고 의사결정 확장하기 활동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내면화 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인간존중, 기본 질서, 공동체 의식, 민주적 절차 능력이 신장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고,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다른 친구들을 존중해가는 모습들이 증가하였으며, 학급에서 소리 지르기를 통한 의사전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려는 모습이 늘어났다고 하였다.

그밖에도 박순규(2012)는 공공도서관과 시민의식의 관계 연구를 통해 논산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지역민들이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키워나가고 시민단체 활동에도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 성숙에 필요한 사회 자원을 축적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다고 분석하면서, 공공도서관은 지금까지의 단순한 지식정보의 전달, 열람실 운영, 취미나 자아연찬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머릿속에서만 머물고 있는 의식들이 사회와 세계로 확장되어 실천될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

나. 나눔 교육

이경은(2007)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향상을 위한 나눔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성 연구를 위해, 수도권의 각각 다른 3개 초등학교의 4학년 3개 학급 학생 81명을 실험집단으로, 각 실험집단의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다른 학급을 임의로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에는 6차시에 걸친 연구자가 제작한 나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통제집단에는 보통의 수업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프로그램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더불어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영역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효과가 있었고, 특히 도와주기, 협동하기, 보호하기, 공감하기 영역에서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초등학교의 수업현장에서 나눔 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적합함을 보여주며,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은 나눔 활동의 기반이 되어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들이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의지와 사회성을 갖춘 시민으로 자라나는데 큰 밑바탕이 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류숙희·엄채윤·송석재(2012)는 나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해 유아 및 초저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교수체제설계 모형에 따라 나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ADDIE 절차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모형을 먼저 설계하였다. 또한 내용상에서 다중지능이론의 인성지능(인간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의 개념을 활용하여 기존의 나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분석(나눔 교육 실태와 요구분석, 학습자 분석, 과제분석), 설계(프로그램 구조, 연령별 내용 단계, 수업 교안설계), 개발(초안개발부터 CD수정보완까지 다섯 단계), 실행 및 평가(강사양성과정 및 나눔 교육 실행)의 네 단계에 걸친 진행되었다며, 그 결과 ISD를 활용하고, 인성지능이라는 심리적 토대의 형성에 초점을 둔 나눔 교육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실천 및 보완이 가능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의 예임을 확인하였다.

이소진(2015)은 초등학생의 학교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일상 나눔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해, '일상'을 주제로 하여 나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등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해 계속해서 되돌아보고 자신감과 깨달음을 얻으며,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박신영(2015)은 초등학생 공동체 의식과 친사회적 행동 증진을 위한 나눔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를 위해,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9학급 중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는 2학급을 편의표집 하였다. 그리고 나눔 교육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시행하는 학급을 실험집단으로 일반 교과 내용으로 진행하는 비교집단 1학급을 편의표집 하였다. 각 집단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총 47명의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효과성 차이 검증을 위하여 총 4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에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나눔 교육 프로그램 5회기를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고, 비교집단은 담당 교사에 의해 일반적인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나눔과 공동체에 대해 스스로 깨닫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학생들의 의식과 행동에 변화를 보였다는 의미를 밝혀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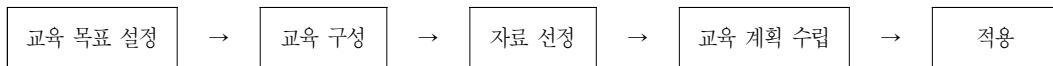
그밖에도 유아를 대상으로 했지만 문학(그림책, 동화)을 활용한 연구에는 맹지나(2010)와 박춘기(2013)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시민의식 교육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시민단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나눔 교육은 유아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문학을 활용해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동시에 나눔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Ⅲ. 문학 활용 나눔 교육 방안

1.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문학 활용 나눔 교육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2014년 하반기에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원시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3-4학년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총 8차시 동안 적용을 했다. 따라서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은 그 프로그램을 예로 제시하면서 모색하고자 한다. 다음의 <그림 1>은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1>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

가. 교육 목표 설정

교육 목표는 정해진 기간과 시간 동안에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만약 정해진 기간이 8차시라면 그 도달점에 이루어야 할 목표를 종합목표라 하고, 8차시 동안 각 차시에 이루어야 할 목표는 세부목표라고 한다. 즉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종합목표와 세부목표를 바탕으로 구성되고 실행되는 셈인데, 목표는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인 필요도 있다.

1) 종합목표

지은림과 선광식(2007)은 Cogan(2000), IE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2001), 김태준 외(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시민의식을 구성하는 요인을 다음의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시민의식 구성요인

출처	구성요인	내용
Cogan (2000)	국가적 정체성	·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문제에 접근, 조명할 수 있는 능력
	권리· 자각의식	· 타인과 협력하고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책임과 의무감	·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
	참여의식	· 비판적 사고 능력
	사회적 가치 수용	· 비폭력적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환경보존을 위해 소비습관과 생활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할 줄 아는 능력
		· 지역과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IEA (2001)	민주주의, 시민자질	· 민주주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 관련기관과 그 실천은 어떠한가?
	국가정체성, 국제적 관계	· 젊은이들의 국가정체성 혹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어떻게 묘사될 수 있는가? · 이것들은 다른 나라나 지역, 국제조직과 어떻게 관련이 되고 있나?
	사회통합, 다양성	· 젊은이들에게 사회통합과 다양성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그들은 차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태준 외 (2003)	국가정체성	· 국가의식(국방의무에 대한 태도, 국기 및 국가에 대한 태도, 국산품 애용 및 국산시장 보호에 대한 태도, 국가에 대한 애국심 및 존경의식, 한글·영어에 대한 태도, 이중국적에 대한 태도)
		· 국제관계 및 역사의식(국제관계에서 정치적 독립성, 역사에 대한 자부심, 역사에 대한 열등감)
	신뢰 및 가치공유	· 신뢰(정부 관련 기관 및 공직자에 대한 신뢰, 지역사회 및 매스미디어에 대한 신뢰, 학생·학부모·교사 간 상호 신뢰)
		· 기회균등(차별에 대한 지식, 평등원칙에 대한 태도, 남녀의 역할에 대한 태도) · 민주적 가치/다양성(비민주적 절차 허용,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 다양한 가치 수용,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권리 및 책임의식	· 법·규범 준수(법질서 의식, 공공질서의식, 사회규범 준수)
· 도덕성 및 양심(부정부패에 대한 태도, 사회적 도움, 양심적 행위)		
참여의식	· 사회변혁 참여(정당참여, 투표, 저항의식, 환경활동 참여)	
	· 지역사회 참여(이웃 관심, 봉사활동, 환경보호, 희생정신)	

<표 3>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으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요인들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동안 함양을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뢰 및 가치공유, 권리 및 책임의식, 참여의식 구성요인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가치 수용’,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이웃 관심’, ‘봉사활동’, ‘희생정신’을 중심으로 종합목표를 수립했다. 다음의 <표 4>는 연구자가 수립한 본 프로그램의 종합목표이다.

<표 4> 종합목표

종합목표
<p>현대 사회는 서로에게 무관심하다. ‘나’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나눔은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행동이자 미덕일 뿐이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어느덧 나눔은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야 할 일이 되어 버렸다.</p> <p>그러나 나눔은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심이 팽배한 현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켜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나아가 남에게 베풀 줄 알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미래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초등학생들이 나눔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데 초점을 두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문학을 선정해 나누며, 등장인물과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동일시와 함께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과정은 참여 학생들로 하여금 나눔의 미덕을 익혀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p>

2) 세부목표

Bjorhovde(2002, 7-19)는 나눔 교육의 중요 개념 및 교육 방법을 다음의 <표 5>와 같이 제시했다.

<표 5> 나눔 교육의 중요 개념 및 교육 방법

구분	내용		세부내용
중요 개념	사실적 개념		나눔이란 / 나눔의 역사 / 우리 사회에서 나눔의 역할 /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동기적 개념		사람들이 나누는 이유 / 부에 상관없이 기부와 봉사를 통해 나눔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인지 / 개인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인지
	과정적 개념		어떻게 나눔의 과정이 이루어지느냐 / 비영리 조직의 구조와 운영 / 나눔의 결과 분배
	개인 발전적 개념	가치와 기술의 발전	다른 이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 / 알거나 모르는 다른 사람을 돕는 능력, 소속된 조직과 지원할 원인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과 같은 현명한 의사결정 기술
나눔의 윤리		기부자로서의 권리와 기부자의 증대를 위한 비영리 조직의 의무, 기부와 타인의 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	
교육 방법	인지적 방법	표현하고 토론하기	아동들이 듣고, 이야기, 기사를 읽고, 그들이 듣고 읽은 것을 말로써 표현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는 것
		반영하고 과정하기	배운 것을 아동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활동
		모델링	어른이나 선배들이 나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얘기해 보는 활동
		작문	아동이 역사적인 상황이나 지역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는 것, 그들이 나눔을 행한 사람의 경험을 기술한 자서전이나 위인전을 써보는 것
	감정적 표출	이 방법은 어떻게 아동이 어떤 나눔 행동의 결과가 되는 상황과 욕구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돕는 토론	
경험적 방법		체험 활동 / 봉사 활동 / 기부 활동	

<표 5>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눔 교육의 세부목표는 두 개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먼저 1단계는 나눔에 대해 아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2단계는 그것을 실천하는데 목표가 있다. <표 6>과 <표 7>은 각 단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 6> 1단계 - 나눔에 대해 알기

종합목표	차시	세부목표
나눔에 대해 알기	1	나눔의 개념 알기
	2	나눔의 역사와 문화
	3	나눔의 대상 알기
	4	나눔의 방법 및 절차 익히기

〈표 7〉 2단계 - 나눔 실천

종합목표	차시	세부목표
나눔 실천	5	나눔 실천해 보기
	6	나눔 참여하기 1
	7	나눔 참여하기 2
	8	나눔미로 거듭나기

나. 교육 구성

1) 교육 기간 및 시간

대부분의 교육은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체계적인 구성을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덕분에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학교(도서관) 혹은 공공도서관이라면 학기 단위로 수업과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최대 15-16차시를 운영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8차시 미만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또한 1차시 당 시간은 120분 혹은 90분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자가 운영한 문학 활용 나눔 교육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매주 1차시 씩 총 8차시에 걸쳐, 1차시 당 120분 씩 방과 후에 진행되었다.

2) 교육 운영자 및 참여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참여 구분을 각 학년별로 하는 경우, 저학년(1-2)·중학년(3-4)·고학년(5-6)으로 하는 경우, 저학년(1-3)·고학년(4-6)으로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본 연구자는 이 가운데 교육 효과가 가장 높은 구성은 각 학년별 구분, 두 번째는 저·중·고학년의 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저·고학년의 구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각 학년별 구분이 학습 및 생활 경험 수준이 가장 비슷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학년별 구분을 해서 참여자를 결정하고, 참여 학생의 숫자에 따라 주 교육자 1인과 보조 교육자의 숫자를 달리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3-4학년 학생들 13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주 진행자 1인과 보조 진행자 1인이 함께 운영하였다. 보조 진행자 1인을 둔 이유는 모둠을 나누어 활동하거나 활동지 작성 및 발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표 8〉은 참여 학생들에 대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숫자는 총 13명이다. 그 중 3학년이 8명, 4학년이 5명이고, 남학생이 5명, 여학생이 8명이었다. 비록 같은 학년끼리의 구성은 아니었으나, 인접하고 있는 중학년들끼리의 구성이어서 운영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표 8〉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순번	학년	성별	이름
1	3	남	박**
2	3	남	고**
3	3	여	윤**
4	3	여	최**
5	3	여	이**
6	3	여	김**
7	3	여	김**
8	3	여	이**
9	4	남	신**
10	4	남	전**
11	4	남	김**
12	4	여	설**
13	4	여	이**

다. 자료 선정

자료는 참여 학생들의 학년, 교육 목표, 교육 운영 시간 등을 고려하여 분량이 많지 않으면서도 담고 있는 주제 및 내용이 취지에 맞는 것 위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분량이 많은 것은 참여 학생들에게 미리 제시해 읽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 차시 별 교육 프로그램 시간에 중요 장면들을 스캔해서 보여주면서 발문과 관련 활동을 이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자료 선정은 문학 활용 나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가장 신중하게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작업이다. 〈표 9〉는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선정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표 9〉 선정 자료

차시	자료 구분	제목
1	동화	세상을 밝혀주는 힘 나눔
2	동화	나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3	동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해요
4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5	그림책	달리는 나눔 가게
6	그림책	행복을 전하는 편지
7	동화	나누면 행복해요
8	동화	작은 나누미

본 교육을 위해 선정한 자료는 동화가 다섯 편, 그림책이 두 편, 그리고 영화가 한 편이다. 선정된 자료들은 모두 나눔을 주제로 하고 있다.

라. 교육 계획표

이상의 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된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 계획표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 계획표

차시	세부목표	선정 자료	관련 활동
1	소개 나누기 및 나눔의 개념 알기	세상을 밝혀주는 힘 나눔	프로그램 소개, 자기소개, 나눔이란?
2	나눔의 역사와 문화	나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나눔 실천가와 만나기
3	나눔의 대상 알기	누구나 도움이 필요해요	나눔 대상 마인드맵, 쿠폰 만들기
4	나눔 방법 및 절차 익히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Pay it forward 방법 알기
5	나눔 실천해 보기	그림책 : 달리는 나눔 가게	아나바다 장터 열기
6	나눔 참여하기 1	도서 : 행복을 전하는 편지	힘든 사람들에게 편지 써주기
7	나눔 참여하기 2	도서 : 나누면 행복해요	기부하기
8	나눔미로 거듭나기	도서 : 작은 나눔미	나눔 계획 작성, 참여 소감 나누기

마. 사후 평가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참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마지막 시간에 사후 평가를 실시했다. 사후 평가는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각 문항 별로 ‘만족’, ‘보통’, ‘미흡’의 세 항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본 설문지는 수원시 인문학 도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주관한 경기대인문학연구소에서 각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구성한 것이며, 전반적인 만족도, 내용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설문 문항 구성

문항 번호	문항 내용
1	강의는 인문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2	강사는 열심히 강의했나요?
3	강의 내용에 만족하나요?
4	강사는 수강생들과 의사소통(상호작용)을 잘 하였나요?
5	강의 시설 이용은 편리했나요?
6	강의 시간은 충분하였나요?
7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에 대한 안내와 지원이 잘 이루어졌나요?

2.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 적용 방안

본 장에서는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차시를 위해 구성한 프로그램 내용과 참여 학생들의 활동 사항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 1차시

1차시의 세부목표는 나눔의 정의와 동기를 아는 것이다. 교육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참여 동기와 흥미를 높이고,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자기소개는 서로 나누어야 서로를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더 깊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눔의 기본 속성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소개 나누기가 끝나면 각 참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나눔’의 의미는 무엇인지 활동지에 적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표 12>는 1차시를 위해 구성한 활동지 양식이며, <표 13>은 참여 학생들의 답을 정리한 것이다.

〈표 12〉 내가 생각하는 나눔

내가 생각하는 나눔에 대해 적어보세요.

〈표 13〉 내가 생각하는 나눔에 대한 답변

순번	학년	이름	답변 내용
1	3	박**	기부를 하는 것
2	3	고**	같이 놀아 주는 것, 먹을 것을 나누어 먹는 것
3	3	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4	3	최**	동생에게 양보해 주는 것
5	3	이**	자선냄비에 돈을 넣는 것
6	3	김**	우정을 나누어 주는 것
7	3	김**	친구에게 준비물을 나누어 주는 것
8	3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9	4	신**	누가 달라고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주는 것
10	4	전**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11	4	김**	돈을 나누어 주는 것
12	4	설**	함께 나누며 생활하는 것
13	4	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표 1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나눔을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것 혹은 주변 사람들과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 2차시

2차시의 세부목표는 나눔의 역사와 문화를 아는 것이다. 나눔의 역사와 문화는 선정 자료 ‘나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에도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진행자가 설명을 하기 보다는 도서를 읽고 온 학생들이 직접 발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더불어 도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은 슬라이드로 구성해 제시해 주었다. 〈표 14〉은 선정 자료를 바탕으로 나눔을 실천한 사람과 단체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14〉 나눔을 실천한 사람과 단체들

주제	사람 혹은 단체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세요!	마더 테레사
사랑이 꽃피는 동네	최귀동
팔봉이 아저씨 어디가요?	국제로타리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노래하자	김장훈
내가 여성들을 돌봐야 해	이태영
세상의 슈퍼이치들	국경없는 의사회

마이애군 옥수수 추장님	김순권
밥 굶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최일도
먹을거리를 저장해요	푸드뱅크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앤드루 카네기
나눔은 가까이, 사랑은 멀리멀리	오프라 윈프리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달려가요!	유니세프
사람도 침팬지도 모두 자연이네	제인 구달
나무야, 서서 자는 나무야	임종국
돌고래야, 돌아와~	그린피스
사회를 위한 기업이 되자	유한양행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세요	더 바디샵
현 물건에는 먼지만 있는 게 아니야	아름다운 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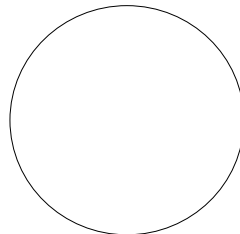
다. 3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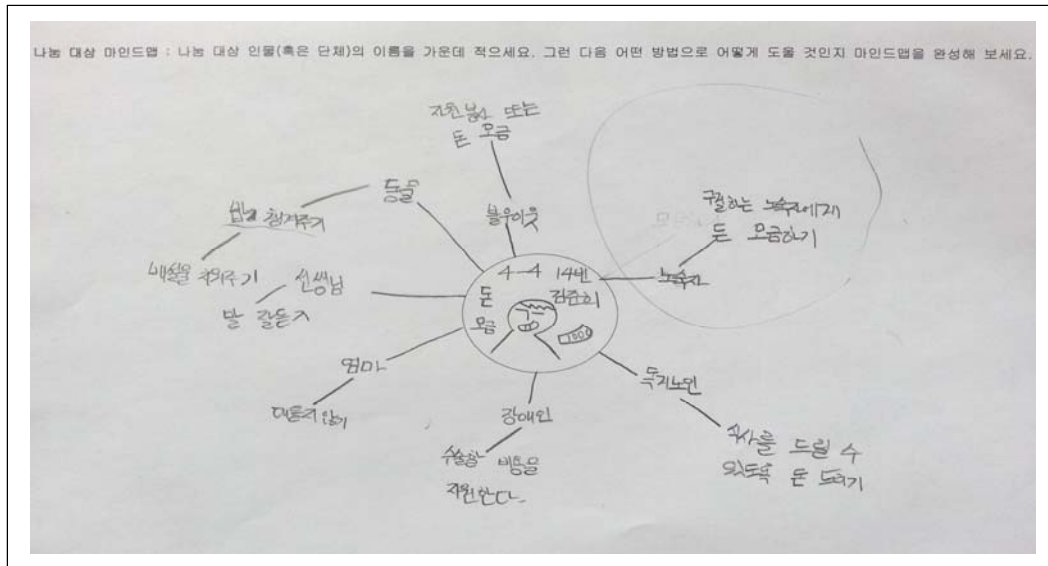
3차시의 세부목표는 나눔의 대상을 아는 것이다. 선정 자료 ‘누구나 나눔이 필요해요’는 장애인 등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알려준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는 관심과 사랑, 나눔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준다. 선정 자료를 바탕으로 발문을 나누고 이어서 ‘나눔 대상 마인드맵’ 활동을 진행했다. 이 활동은 마인드맵의 주제를 ‘나눔 대상’으로 정한 뒤, 참여 학생들 스스로 주변 사람들 중 나눔 대상에는 누가 있는지 떠올려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나눔 대상 마인드맵’이 끝난 뒤 실천을 위하여 ‘나눔 쿠폰 만들기’를 실시했다. 이 활동은 나눔 대상으로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을 적어서 직접 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표 15>는 ‘나눔 대상 마인드맵’을 위한 활동지 양식이고, <그림 2>는 참여 학생의 활동 내용이다.

<표 145 나눔 대상 마인드맵>

나눔 대상 인물(혹은 단체)의 이름을 가운데 적으세요. 그런 다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지 마인드맵을 완성해 보세요.





<그림 2> 나눔 대상 마인드맵 활동 내용

라. 4차시

4차시의 세부목표는 나눔의 방법과 절차를 익히는 것이다. 선정 자료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원제 pay it forward)’는 나눔을 위한 방법을 중학생의 시각에서 보여준다. ‘행복 순환의 법칙’으로 불리는 이 방법은, 그림책 ‘평범한 메리의 특별한 행동’에도 소개되는데, 한 사람의 선행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 행동이 이어지면 결국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4차시에는 3차시 때 정한 나눔 대상들에게 어떤 도움을 어떻게 주어야 할 것인가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마. 5차시

5차시의 세부목표는 나눔 실천해 보기이다. 선정 자료 ‘달리는 나눔 가게’에는 요셉네 가족이 등장한다. 이 가족은 가끔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그럴 때마다 누군가에 의해 버려졌지만 쓸 만한 물건들을 주워온다. 그런 뒤 그 물건들을 깨끗하게 닦거나 고쳐서 새 것처럼 만들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 과정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나누어 쓰게 만드는 동기를 만들어 준다.

5차시의 활동은 ‘아나바다 장터 열기’로 선정 도서의 내용에 따라 참여 학생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서로 나누는 장을 열어보았다. 이 활동을 위해서는 참여 학생들이 물건을 챙겨 와야 하는데, 만약 챙겨 오지 않으면 나눔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 하루 전에 문자를 보내서 알리고 학부모에게도 미리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림 3>은 아나바다 장

터 열기 활동을 통해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 다른 친구들과 나누거나 물물교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과정은 참여 학생들에게 우리 주변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나누어 활용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되면 자원을 아낄 수도 있고 나눔의 기쁨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림 3> 아나바다 장터 열기

바. 6차시

6차시의 세부목표는 나눔 참여하기이다. 6차시를 위해 선정된 자료는 그림책 ‘행복을 전하는 편지’로, 편지 한 통이 누군가에게 커다란 기쁨을 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도서와 ‘굿네이 버스 편지쓰기 대회 동영상’을 바탕으로,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줄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그것을 함께 나누 뒤 직접 발송하는 활동을 진행해 보았다. 만약 편지 받을 대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굿네이 버스 편지쓰기 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사. 7차시

7차시의 세부목표도 나눔 참여하기이다. 7차시에는 나눔이 곧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믿음 아래, 실제 기부를 통해 행복을 얻고 있는 사람들(빌 게이츠, 위렌 버핏, 마크 주커버그, 마윈 등)을 먼저 소개해 주었다. 이어서 ‘굿네이 버스’ 등을 통해 신청한 저금통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선냄비에 기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더불어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어, 학생들 스스로가 기부를 위한 항목을 정하고 계획을 세운 뒤에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었다.

아. 8차시

8차시의 세부목표는 나누미로 거듭나기이다. 8차시는 프로그램을 마치는 시간으로,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눔 계획표’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나눔은 교육 중에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실천될 필요가 있는 덕목이기 때문이다. <표 16>은 나눔 계획표 만들기 활동지 양식이고, <표 17>은 참여 학생 중 4학년 ‘이**’의 나눔 계획표이다.

<표 16> 나눔 계획표 만들기 양식

나의 나눔 계획표			
	항목	나눔 대상	방법
나눔 계획			

<표 17> 나눔 계획표

나의 나눔 계획표			
	항목	나눔 대상	방법
나눔 계획	자선냄비	어린이 환자	자선냄비에 돈을 넣는다.
	굿네이버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굿네이버스 저금통에 돈을 넣는다.
	필요 없는 물건 기부	거지	필요 없는 물건을 나누어 준다.
	피아노	동생	동생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준다.

자. 사후 평가 결과

<표 18>은 마지막 차시에 참여한 12명의 학생들이 평가 문항에 답한 결과를 빈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8〉 사후 평가 결과

문항 번호	만족	보통	미흡
1	10	2	0
2	12	0	0
3	10	2	0
4	11	1	0
5	9	3	0
6	5	5	2
7	11	1	0

〈표 18〉의 평가 결과를 보면 모든 항목에 걸쳐 ‘만족’ 혹은 ‘보통’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 학생들은 문학 활용 나눔 교육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고,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나눔에 대한 인식도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6번 항목에서는 ‘보통’과 ‘미흡’의 답변 빈도가 높는데, 이는 교육 프로그램 횟수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나눔 교육은 단기에 그치기보다는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오늘날의 사회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다양하고, 그에 따른 개성화와 개별화가 심화되어 시민 각자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향에 따라 교육과정에서도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데, 독서는 스스로 할 수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종래의 목적이 있다는 점은 문학을 활용한 교육이 그 어떤 교육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교육계에서도 활발히 모색되고, 문학을 활용한 독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 향후 미래의 주역이 될 초등학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문학 활용 나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이론적 고찰을 통해 시민의식과 나눔, 나눔 교육의 의미를 살펴보고, 더불어 다른 나라의 시민교육 및 나눔 교육의 실례를 찾아보았다. 이어서 2014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원시 C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실행된 프로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과정의 어린이들에게 실시할 수 있는 문학 활용

나눔 교육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문학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모색했다는 면에서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과 함께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방안을 모색했기 때문에, 기타 학년 및 유아, 중·고등학생을 위한 방안 모색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단계화 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문학 활용 나눔 교육 방안이 모색되고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될 필요가 있다. 만약 단계별 방안이 모색되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시민의식과 나눔에 대한 인식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문길. 2002. 『어린이회를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 류숙희, 엄채운, 송석재. 2012. 나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교수체제설계모형과 인성지능을 활용하여. 『한국윤리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2년 1월 15일-16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2층 회의실. pp. 433-460.
- 맹지나. 2010. 『그림책을 활용한 나눔교육 활동이 유아의 나눔에 대한 인식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 박순규. 2012. 『공공도서관과 시민의식의 관계 연구 : 충청남도 논산지역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인적자원정책전공.
- 박신영. 2015. 『초등학생 공동체 의식과 친사회적 행동 증진을 위한 나눔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박재창, Seliger, B. J. 2007. 『민주시민교육의 전략과 과제』. 서울: 오름.
- 박춘기. 2013. 『동화를 통한 나눔교육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 송용구. 2010. 프랑스의 학교 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 한국의 학교 시민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2(2): 83-118.
- 신경희. 2010.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시 실천전략』.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신두철. 2010. 유럽연합의 정체성과 시민교육네트워크(NECE)에 대한 고찰. 『한독사회과학논총』, 20(4): 87-104.
- 아름다운재단. 2005. 『2005 나눔교육 교사연수 자료집』. 서울: 아름다운재단.

- 우맹식. 2005.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 시민성의 시민 교육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민윤리교육과.
- 윤종원. 2014.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학급공동체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과교육전공.
- 이상오. 2014. 독일의 학교민주주의와 시민교육에 대한 연구. 『교육의 이론과 실천』. 19(2): 23-52.
- 이수호. 2014.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독서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독서교육전공.
- 이경은. 2007.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향상을 위한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 이소진. 2015. 『초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일상나눔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상담교육전공.
- 지은림 · 선광식. 2007.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 탐색 및 관련변인 분석. 『시민교육연구』 39(4): 115-134.
- 최서연. 2012. 『초등학생을 위한 나눔교육 프로그램 국제 비교』.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제사회문화교육전공.
- Bjorhovde, P. O. 2002. *Teaching Philanthropy to Children: Why, How, and What*. New Directions For Philanthropic Fundraising, No. 36:7-19. CA: Jossey-Bass Publisher.
- Mickel, W. W. 1995. *Politische Bildung*. In D. Nohlen(Hg). Wörterbuch Staat und Politik. Bundeszentrale für die politische Bildung. pp. 561-563.
- Payton, R. 1989. Major Challenges to Philanthropy. *Working Papers Series*, 95-19, IN: Indiana University Center on Philanthropy.
- Pöggeler, F. 1981. *Erwachsenenbildung: nur Wenige? Theorie der Erwachsenenbildung als Theorie der Partizipation*. In F. Pöggeler & B. Weiterhoff(Hg). Neue Theorien der Erwachsenenbildung. Stuttgart; Berlin; Köln; Mainz: Verlag Kohlhamm, 76-88.
- 藤井佐知子. 2007. 『フランス市民性形成論(1)』. 東京: 日本放送出判協會, 108-140.
- Go-Givers. <<http://www.gogivers.org/research.cfm>> [cited 2015. 2. 20].
- Giving Nation : Helping students help others. <<http://www.g-nation.org.uk/who-we-are/about-giving-nation/>> [cited 2015. 2. 20].
- Oxfam. <<http://www.oxfam.org.uk/education/>> [cited 2015. 2. 20].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eautiful Fund. 2005. *2005 Source Book of Teacher Training Program for Philanthropic Education*. Seoul: Beautiful Fund.
- Chi, Eun Lim & Kwang Sik Sun. 2007. "Analyzing the Construct of Global Citizenship and Related Variable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39(4): 115-134.
- Choi, Seo Yeon. 2012.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n Philanthropy Education Programs for Primary School Students*.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oh, Moon Gil. 2002. *A Study on the Cultivation of Democratic Civil Consciousness through the Student Assembly in Elementary School*.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Lee, Kyoung Eun. 2007. *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Effectiveness of Philanthropic Education Program for Prosocial Behavior of Children*.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 Lee, Sang O. 2014. "A Study on School Democracy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Germany."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19(2): 23-52.
- Lee, So Jin. 201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aily life Sharing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Elementary student's School Satisfaction*.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Lee, Soo Ho. 2014. *A Study on Reading Education for Democratic Disposition*.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 Maeng, Ji Na. 2010. *The Effect of Philanthropic Education Activities Utilizing Picture Books on Young Children's Realization About Philanthropy and Prosocial Behavior*.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Park, Choon Hee. 2013. *The Impact of Sharing Education on Prosocial Behavior of Children through Utilizing the Fairy Tale*.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achon University.
- Park, Jae Chang & B. J. Seliger. 2007. *Strategy and Tasks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eoul: Oreum.

- Park, Shin Young. 2015. *A Study on Evaluating the Impact of Philanthropy Education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nse of Community and Prosocial Behavior*.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Park, Sun Gyu. 2012. *A Study on Relation of Public Library and Civic Consciousness : Focusing on User of Public Library Service in Non-san, Chungcheongnamdo*.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al Policy and Human Resources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Ryu, Sook Hee-Um, Chae Yoon-Song, Seok Jae.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haring education program based on ISD model and personal intelligence." *Source Book of Conference of Korea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433-460.
- Sin, Du Chel. "Identity of European Union and Networking European Citizenship Education (NECE)." *Journal of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ürer Sozialwissenschaften*, 20(4): 87-104.
- Shin, Kyung Hee. 2010. *The Practical Strategy for Culture Sharing it's spread*. Seoul: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Song, Yong Goo. 2010. "What French Citizenship Education Suggests to Korean Citizenship Education."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2(2): 83-118.
- Woo, Maeng Sik. 2005. *(A) Study on Civic Education and Communitarian Liberalistic Citizenship*.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Yoon, Jong Won. 2014.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mmunity Operation Program to Promote Democratic Citizenship*.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